불자 세상보기

인륜마저 무너진 교실

학생이 교사폭행 잇달아… '왕따'도 계속

세상에 이보다 더 개탄스런 일은 없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지켜가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구타당하는 일이 계속해 벌어지는가 하면 인간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른바 '왕따' 현상도 계속해 늘어가고 있다.

지난 9일 경북 모 여고에서 일어난 한 학생의 교사 구타사건은 충격적이다 못해 비애마저 느끼게 한다.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찼다니…. 학교가 배움의 터전이 아닌 패륜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서울 모고교에서는 인근 고교생 4명이 친구의 졸업식장에서 밀가루를 뿌리려다 만류하는 교사 3명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지난해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나무라는 교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건이 있었고, 대구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숙제를 안했다고 꾸짖는 여교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대도시 학교주변의 전자오락실에는 지난해부터 학생이 교사를 집단 구타하는 내용의 게임 '캠퍼스 블루스'가 등장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97년 36건에서 98년 70건, 99년도 77건으로 2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그런가 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산하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5만5천6백여건) 중 집단따돌림이나 교우관계 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호소한 학생이 39%인 2만1천7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8년(1만7천8백여건)의 1.2배, 97년(6천9백여건)의 3.1배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담학생 중 9백여명은 우울증·품행장애·학습장애·약물 오남용 등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특별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 '왕따학생'의 처참한 학교생활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 12일 저녁 KBS 제1TV에서 방영된 일요스페셜 '교실 이야기'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2시간 동안 무려 11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며 한 학생을 폭력적으로 괴롭혔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빠진 교육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 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 만큼 대책도 간단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대로는 분명 안된다. 교육문제이기 전에 인륜의 문제로 여겨질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선생자경〉에 "제자는 마땅히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그릇된 행위가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해야 하고, 스승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방불경〉에는 "화내는 마음을 가지고 스승을 보는 자가 있다면, 그가 지닌 악업은 온갖 중생의 눈을 뽑아낸 죄보다 더 크다"는 가르침도 있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의 도리를 말한 경전 말씀은 수없이 많다. 또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제간, 동료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전문가들도 교사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가정과 사회전체가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미래사회는 '결함사회' 가능성"

빌 조이, 미래분석 잡지 '와이어드'에 기고

첨단기술의 발달은 과연 인류에서 장미빛 미래일까, 아니면 재앙의 그림자일까.

미국 굴지의 소프트웨어업체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공동 창업자인 빌 조이(Bill Joy)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미래분석 잡지 '와이어드(Wired)' 14일자에 기고한 '왜 우리에게 미래는 필요치 않은가(Why the Future Doesn't Need Us)'라는 주제의 글에서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들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이는 이같은 미래세계를 '결함사회(dystopia)'로 명명하고, "기술이 개발될수록 인류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어왔지만 만약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이제 그런 우려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이가 우려하는 '21세기의 독약'이 될지도 모르는 분야는 유전공학(genetics), 나노공학(nanotechnology), 로봇공학(robotics) 등 세 분야. 그는 이 세 가지를 'GNR'로 통칭하고, 이것들에 의해 인간의 개성이 말살되고 급기야는 인류가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현재보다 수백만배 강력해진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조이는 컴퓨터의 발달로 삶의 모든 환경을 컴퓨터가 지배하게 될 것이며,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권조차도 컴퓨터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전공학의 발달로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지 않은 인간이나 동물은 자연스레 도태되며, 나노공학은 의료기술의 발달을 위해 흡혈귀를 창조·이용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30년 경에는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스스로 복제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며, 이런 첨단기술들은 자기복제, 돌연변이, 기계적·생물학적 전염병들을 쏟아낼 능력을 스스로 또는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확산 등 신기술의 진보는 이를 악용하는 소수에 의해 핵무기보다 더욱 막강하고 그 피해규모도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선후보들 "선거법 준수" 서약 '선거법 정말 지켜질까?' 14일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주최로 서울 종로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이번 16대 총선 서울지역 입후보자들이 서약식을 통해 선거법 준수를 다짐했다. 공언(公言)이 될지, 공언(空言)이 될지는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복제돼지도 탄생

장기이식 치료 전기 기대

인간존엄성 논란도 가속화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지 3년반만에 세계 최초의 복제돼지가 탄생했다. 특히 이번 복제돼지 탄생은 동물장기의 인간이식으로 불리는 이종이식(異種移植) 기술 개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영국의 생명공학회사 PPL 세러퓨틱스는 14일 이같은 연구결과를 밝히고 "현재까지 알려진 기술적 어려움은 모두 극복했으며, 4년내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올 1월 현재 각각 6만8천여명과 5만명에 이르며, 이번 복제돼지 탄생으로 장기이식 치료에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돼지장기는 그동안 간 심장 신장 등 인간 장기와 크기가 가장 비슷하고 인체 이식 후 거부반응이 가장 적다는 점 때문에 만성적인 장기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돼지는 체세포핵 이식 등 체외 난자 조작과정에서 손상되기 쉽고 20개 이상의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 동시에 자궁에 이식하지 않으면 수태가 안되는 등 양이나 소 등에 비해 더욱 어려운 기술이 필요해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국저시력인연대 '실명예방 재활교육'

질병·사고·유전(약시) 등의 원인으로 손상된 시력이 회복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사회의 배려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이 사실.

전국저시력인연대(회장 미영순)가 실시하고 있는 '실명예방과 대처를 위한 저시력인 재활교육'은 저시력인들의 재활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저시력인들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교육은 눈의 보호와 관리, 컴퓨터 등 직업재활훈련, 취미,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 또 저시력인들을 위한 생활재활, 영어외화, 번역 등의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02)593-3396

시론

유권자만이 희망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낙천·낙선운동으로 선거혁명에 기대가 높다. 그러나 지역감정 자극, 천문학적 돈의 살포, 흑색선전과 비방, 색깔론 등 낡은 정치의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정치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정당의 지구당행사에서 식권이 마구 뿌려지는가 하면 학생을 동원하기도 하고, 출마자에게는 표를 몰아줄테니 돈을 내라는 지역단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

빠짐없이 바르게 찍자

일부 지성인들의 "이번에도 선거혁명은 김칫국을 마신것에 불과했다"는 자조도 이쯤되면 무리가 아니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비난해 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스스로의 행태에는 아량을 베풀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총선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결코 절망해서도 안된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주권행사를 한다면 낡고 썩은 정치를 바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투표 행위란 그저 한 표를 던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한 표를 찍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 번째, 빠짐없이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불가피하게 투표일에 집을 떠나 있거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부재자 투표이다.

둘째, 바르게 찍어야 한다. 지연·혈연·학연·종교를 따져서 찍으면 안 된다. 선심공약, 실현불가능한 공약에 속아서도 안 된다. 돈을 마구 뿌리는 후보도 찍으면 안 된다. 후보자가 돈을 뿌리면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에 고발하고 증거로 갖다주어야 한다. 철저한 공영제가 아니므로 선거에는 어차피 돈이 들지만 돈으로 표를 팔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금권선거는 금권정치를 불러온다.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조달 과정에서 검은 돈도 받고, 이권에도 개입한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뽑아준 유권자 자신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셋째, 불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부정을 묵인하는 것은 유권자 권리와 의무의 포기이다. 선거부정을 보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의 경우 물증이 있거나 그 정황이 정확하면 더욱 좋다.

넷째,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각 정당은 앞다투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지역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다섯째,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표는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누가 더 나은가를 판단·선택하는 행위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후보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홍보물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한다.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낙천대상자 명단은 후보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 가운데 하나이다. 후보 검증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바른 투표를 하려고 해도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 따라서 '문제 정치인'들을 가려내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역감정 벗어나야

여섯째,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해도 된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특정 후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좋다. 이 때 자원봉사자 모집을 빙자한 금품 수수행위 등 불법을 거부해야 한다. 돈 덜 드는 선거를 위해 활용하는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와의 은밀한 거래로 오히려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와 지역감정만 잘 극복하면 유권자의 손에 의한 선거혁명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낡은 정치에 대한 절망과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는 2000년의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유권자들이여 깐깐해집시다.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양분을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응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최신 사주임상록

여기 주역(周易)을 숫자로 풀이한 혼천작괴법(渾天作掛法)의 적중률(的中率)에 놀라지 말라!

周易의 진수가 여기에 있다.
周易作名法에 이어 펼쳐낸 세계 최초로 수학, 과학, 의학등을 철학에 접목시킨 四柱臨床錄이다.
딱딱한 四柱풀이라기 보다는 純粹한 우리들의 周邊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 상 욱 지음
값 25,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卍行"

卍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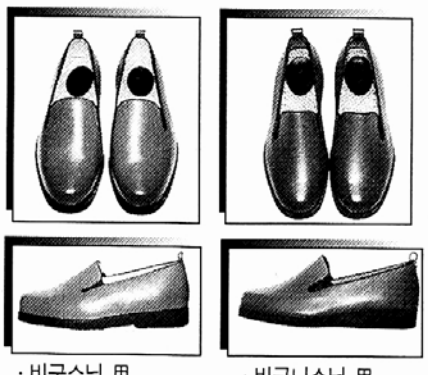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 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卍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卍行대표 박동진 합장